



# 2004 미국수도협회(AWWA) 전시회 참관 및 美 상·하수도 시설 견학



글 박인석 \_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관리부장

한국상하수도협회(KWWA)는 매년 6월에 미국수도협회(AWWA)가 개최하는 정기회의 및 전시회(ACE: Annual Conference and Exhibition)를 통하여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의 상하수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참관단을 선발, 본 행사에 참석시켜 왔다.

금년에는 2004년 정기회의 및 전시회(2004 ACE)가 플로리다(Florida)주 올랜도(Orlando)시의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에 따라, 나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모인 20여명의 공무원 및 기업체 임원이 전시회 참관과 미국 상·하수도 시설 견학을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장장 13시간의 오랜 비행시간을 지나 마침내 메제이에프케이(JFK) 공항에 착륙하였다. 문득 습관처럼 시계를 보게 되었을 때, 나를 포함하여 몇몇 일행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직도 시계는 오전 11시를 조금 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였고 이곳의 오늘은 우리가 떠난 한국시간의 어제였다.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고 이 때문에 개회식은 6월 14일(월)이었지만 우리나라와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미리 도착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는 한국과 상이한 이곳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 6월 14일(월)

전날 낮선 이국땅에서 쉽사리 잠을 청하지 못하였는지 모두들 조금은 피곤해 보였지만 오늘은 행사 첫날이고 해서 일찍 식사를 마친 후 참관단 전원은 전시회장으로 발길을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전시회의 분위기를 살필 겸 개막식 한 시간 전에 미리 입장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개최되는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는 현재에도 계속하여 시설확장을 하고 있었으며 AWWA 전시회는 서관에서 개최하고 있었다. 동관은 준공은 되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모노레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편리하게 이동하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하였다.



▲ 전시회 등록창구 전경



▲ 외국인의 참관 편의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등록창구

전시회장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상하수도 관계자들이 참관 등록 혹은 입장을 준비하기 위해 구름같이 모여있었다. 전시회 입장료가 일인당 150달러였지만, 협회에서는 미리 한국 참관단의 경비 절감을 위해 AWWA 담당자와 사전 교섭한 탓에

우리 일행은 75달러로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받아 마침내 전시회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전시회장안에는 570여 개 업체가 950여 개 부스에 자사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가 들어간 전시회장 입구에는 미네오폴드(Leopold)사의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 제품은 그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시 보광동정수장의 일부 여과지에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사용해본 결과 이 제품은 기존 정수장 여과지를 개량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 신설 정수장을 건설할 때 적용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는 서둘러 통로사이를 지나면서 각 부스에서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강 하구 수질 감시, 평가,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축 등 여러 장의 CD는 가방 안에 넣었다. 그 외 제품 및 기술관련 카탈로그도 한국에 돌아가서 차분히 읽어보며 업무에 활용하고자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다.



전시회는 '세계 최대, 최고의 수도 기자재 전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의 업계 유수의 기업이 생산하는 상수도 기자재뿐만 아니라 누수탐지, 원격검침용 수도계량기와 심지어 수질검사에 필요한 모든 분야까지 총망라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 밸브, 펌프, 모니터링 설비, 관 갱생 설비, 수처리약품, 여재, 활성탄, 오존, UV, 멤브레인, 저수설비,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신제품과 신기술이 대형 전시장 곳곳에서 그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특히 강화 콘크리트 중앙기동과 여과필터로 구성된 방사형 집수정, 필터 생산업체의 신제품, 관 접합기구, 하천, 수질 검사/평가/개선 프로그램 등이 우리 참관단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 전시회장 전경



한편 100여개의 Technical Session 및 Workshop 등이 진행되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열린 토론과 발표가 행사기간 내내 이어졌는데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잠시 후 우리일행은 전시회 참관 도중에 미국수도협회(AWWA) 및 산하의 상수도 연구소(AWWA RF)에서 마련한 '한국참관단을 위한 공식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전시회장을 빠져나왔다. 금번 브리핑은 두 기관에서 하는 일, 구성원, 학술 연구한 내용을 우리에게 요약 보고하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미국수도협회(AWWA)는 한국상수도협회(KWWA)처럼 수도 관련 기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협회에 비해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55,000개 이상의 수도국(우리나라의 지자체 수도사업자)이 가입하여 수도관련 단체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에 비해 비록 한국상수도협회가 역사도 만3년이 못되었고 서비스 영역도 좁지만, 곧 미국수도협회처럼 보다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를 기대하기에 부족함 없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금번 AWWA 및 AWWA RF 브리핑은 한국상수도협회가 AWWA RF의 공식 회원기관으로서 그들이 제공하는 회원 혜택을 활용하여 앞으로 국내의 회원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 공식브리핑을 마치고 참관단 전원이 함께

한 시간 정도 브리핑을 받은 후, 우리 참관단은 또다시 전시관에 들어가 여러 나라 회사에서 홍보하는 부스(Booth)마다 둘러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다.

한편 전시관 한쪽에서는 파이프 태핑 기능경진대회(Pipe Tapping Contest)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실제 수돗물이 압송되고 있는 배수관을 천공 분기하여 각종 부속품을 정교하게 접합하는 과정을 어느 팀에서 가장 빨리 마쳤는가를 시험하는 일종의 기능경진대회였다. 진행자의 독려와 익살스런 농담으로 경연장의 분위기는 달아올랐고, 주변에는 자기 팀을 응원하는 열기로 가득 찼다. 특이한 점이라면 이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었다. 남자들이도 버거워 보이는 일을 척척 제시간에 맞추어 하는 여성 참가자들은 나의 시선을 한동안 잡아놓았다.



▲ 여성 선수들만 참가한 파이프 태핑 기능경진대회 장면

약 4시간 정도의 전시회 참관을 마치고 전시회장을 나오면서 전시장은 수많은 부스가 꽉 들어 차 있음에도 각 부스간의 칸막이 설치를 대부분 하지 않아 전시 공간이 넓어 보이고 제품이 부각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년 행사 부스 예약현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예약 및 업무진행의 용이함을 제공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내년



▲ 각 부스간 칸막이 제거로 넓어 보이는 전시회장



▲ 2005년 행사 부스 예약실

2005년 행사의 부스 예약률이 50%에 육박하였고 연말정도 되면 부스가 모두 예약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WATER KOREA 행사의 국제상수도 전시회가 거의 2달 이전에 부스가 매진되고 있는데 말이다.

**6월 15일(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 운동을 하고 Crown Plaza Hotel 밖으로 나갔다. 동트기 전이라 숲은 검게 보였다. 어떻게 생긴 새 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각종 새들이 여기저기서 삐로삐로, 휘로휘로, 씨로씨로, 휘익휘익, 쪼록쪼록하며 지저귀는 합창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하모니였다. 아마도 귀한 이국 손님이 반가워 인사하는 것 같았다.

이 지역에는 고층건물은 없고 대부분 1층 내지 3층 정도의 낮은 건물이 넓은 정원 안에 마치 큰 나무처럼 심겨 있었다. 그 중 한 건물 입구에는 상록 관목인 소철이 서 있는데 높이가 무려 6m나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나무가 아닌가 싶었다.

차도 옆의 콘크리트 보도포장은 폭 1.5m, 신축 조인트를 1.5m마다 두어 균열을 사전에 제어한 결과로 금간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L형 측구의 길이는 서울의 경우 50cm로 하는데 이곳에서는 길이가 3m나 되는 것을 설치하여 조잡하지 않고 매끈하고 보기에 참 좋았다.

아침식사 후 우리 일행은 플로리다 서해안에 있는 탬파베이(Tampa Bay)에 위치해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견학을 위해 AWWA측에서 미리 마련해준 전용 버스에 올라탔다. 올랜도를 출발한 지 거의 2시간이 다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일개 주(State)가 우리나라만 하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정말이지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일행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담한 단층 건물인 탬파베이 수도본부(Tampa Bay Water)내의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도본부의 업무현황과 해수담수화 기술 및 시설현황에 관해서 약 1시간 정도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다.

설명에 따르면, 이곳의 해수 담수화 시설은 1990년에 계획을 세워 설계 시공을 하여 1999년부터 담수화를 시작하고, 연구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다하였다.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인구증가와 지하수 고갈에 따라 대체 수자원 확보 및 가뭄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추후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측면도 고려하였다고 했다.



▲ 해수 담수화 시설 현황 설명중

한편 탬파베이의 해수담수화 시설현황에 관해서는 시설물 총 공사비가 현재까지 110백만달러(약 1,300억원)가 소요되었고 향후 용량의 40% 증설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현재 1일 약 95,000톤에서 1일 132,000톤의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라 하였다. 한편 해수 44백만갤런으로 9만 5천톤의 담수를 만들고 19백만갤런(7만 5천톤)을 방류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발전 냉각수와 1.4% 비율로 희석한 후 방류하고 있었다.



▲ 1,176개의 역삼투압 멤브레인 압력관이 빼곡히 들어찬 시설물 내부



▲ 해수 담수화 시설 현장 견학



▲ 역삼투압 멤브레인 압력관 단면

곧이어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물을 견학했다. 그곳에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곳으로 실내 좌우에 배관이 복잡하게 짝 들어차 있었다. 그 안에는 수천개가 넘는 역삼투압 멤브레인 압력관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담수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곳 해수 담수화 시설은 현재 1,176개의 역삼투압 멤브레인 압력관이 핵심이고 이 압력관은 안전을 위해 교체주기가 약 1년인데 약 70%는 그 이전에 교체한다고 하였다.



▲해수 담수화 시설물 앞에서

담수화 시설은 표준 정수처리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가지만 탬파베이(Tampa Bay) 주변에 인구 증가로 급수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 지하수를 취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건설, 생산하고 있었다. 현재 이 시설에서는 탬파베이에 공급되는 전체 수돗물의 약 10%를 공급하고 있었고 수돗물 판매가격은 톤당 0.65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0원 정도라고 하였다. 적지 않은 생산비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높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 6월 16일(수)

마침내 우리 일행은 아침 7시 올랜도를 출발하여 다음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 4시에 호텔을 출발하였다.

기내 창가에서 내려다보니 농경지의 대형 블록을 구분하는 도로가 나있고, 호수가 수없이 많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씨라 광활한 농경지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산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약 3시간여 비행 후 북아메리카의 등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로키산맥을 넘어갈 때에는 한시도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해발 4천 미터 정도의 높은 산맥이 연달아 이어지고 멀리 빙하가 보이면서 크고 작은 호수들이 보였다. 끝없이 펼쳐지는 서부 대자연의 웅장함은 가슴으로 느낀 감정을 필설로 형용기 어려울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비행기는 협곡을 따라 거대한 사행천이 흐르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드넓은 모하비 사막지대를 마침내 넘었다. 바둑판 모양으로 농지정리를 한 도로에는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길이 대나무를 뉘어 놓은 듯 끝없이 뻗어 있었다.

5시간의 적지 않은 비행 끝에 우리일행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시각으로는 아침 9시이고 동부시간대로는 정오가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3시간이나 번 셈이었다. 캘리포니아 해변의 중앙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뾰족 튀어나온 반도의 끝에 있고 삼면이 바다이며 가파르고 작은 언덕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느덧 우리가 탄 차량은 시원스레 도심을 빠져나와 바로 다음 견학지로 향하였다.

우선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서쪽 하프문베이(Half Moon Bay)에 위치해 있는 코스트사이드 카운티 수도국(Coastside County Water District)이었다. 그곳의 남녀직원들은 한국 참관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다. 책상에는 메론, 포도, 파인애플 등 먹음직스런 과일과 맛있게 보이는 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브리핑을 하기 전에 먼저 맛을 보라고 권했다.

우선 수도국의 담당자는 이곳이 샌프란시스코市 지역의 카운티 이사국 위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근무자 인건비 등을 자체 수익금으로 부담하는 비영리 특별단체라고 소개하였다.



▲ 수도국 업무 현황을 듣는 참관단

또한 수도국은 하루에 1만 7천 톤을 생산하는 소규모 정수장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원수는 지표수를 65%, 지하수를 35% 취수하여 표준 정수처리를 한다고 했다.

상수원에서는 수생식물을 자라도록 하여 원수 탁도가 0.3NTU라고 하는데 과연 여과수의 탁도가 더 낮게 생산될지 의문스러웠다.

하프문베이와 산마테오 지역을 공급하며 급수면적은 500km<sup>2</sup>, 급수인구는 1만 7천 명밖에 되지 않으나 화웨이단지 등에 주로 공급한다고 했다. 수도계량기는 6천여전으로 2개월에 한번씩 검침한다고 했다. 그것은 서울시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수용가 대부분이 수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화훼 농가가 주 고객인 만큼 수돗물 수질관리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요금은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으며 영업용은 단일 요금체계로 가정용은 4단계 누진적용을 하고 있다 하였다. 한편 수돗물 요금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영업용은 톤당 1,370원이고 가정용은 톤당 1,250원 수준임을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코스트사이드 카운티 수도국 사무실 앞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은 설명을 마친 후 정수장 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전용버스에 올랐다. 정수장은 취수장보다 약 170m 높은 산 정상부에 있었다. 착수정, 혼화지, 침전지는 우리의 방식과 같았으나 여과지에는 지붕이 없었다. 여과지를 내려다니 서울의 정수장에 비해 관리가 허술해 보였다. 취수원은 160km 떨어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을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슬러지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온 슬러지는 저장소로 보내 침전 후 고형화시켜 매립하고 원수는 월류시켜 재활용 한다고 하였다.



▲ 정수장 시설 견학

시간 절약을 위해 우리 일행 전원은 점심도 거르고 태평양 해변을 따라 약 한 시간가량 북쪽으로 이동, 샌프란시스코 하수처리장 견학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상하수도부(SFPUC)를 찾아갔다. 하수처리장은 일반 건물과 같이 있는데 대형 출입문에 차폐 시설을 하여 외부인은 무슨 건물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정말이지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가는 동안 이상할 만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병원 건물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하수처리장은 외관이 보이지 않게 지하에 건설하여 지상은 동물원으로 조성한 친환경 복합단지라는 것이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 첨단 공기정화 설비를 가동하고 악취 유출방지를 위해 시설을 밀폐하였다고 한다.

잠시 후 2층 브리핑 룸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자마자 홍보담당자라며 우리 앞에 시청 공무원이 나타났다. 불룩하고 축 처진 배는 남산보다 더 커보였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배가 큰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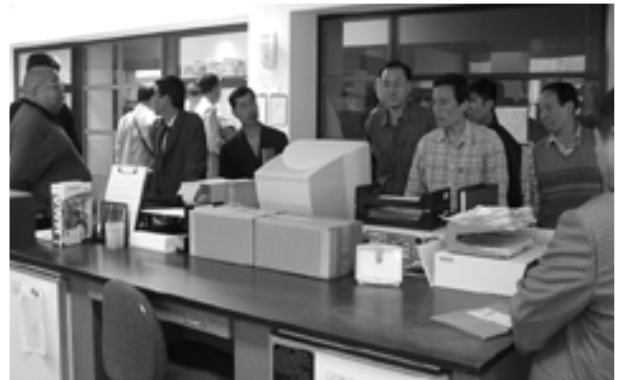


간단한 설명을 듣고 우리는 곧 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갔다. 각종 배관, 펌프 등 처리시설이 방마다 딱 들어차 있고 구조물의 단면이 크고 튼튼해 보였다.

이 하수처리장은 샌프란시스코市에서 쏟아내는 엄청난 하수를 모아 처리하고 폐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였다.

맑은 날의 하수처리량은 32만톤이고 우천시에는 하수와 빗물 약 70만톤을 처리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생물 처리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열병합 발전 설비도 일부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하수집거, 하수처리 및 폐기로 이어지는 물환경 공해 방지 플랜트를 활용하여 태평양에 슬러지를 방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바다 밑으로 매설된 파이프를 통해 육지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9개의 소규모 관을 통해서 방류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주변 해역 오염 측정과 생태를 분석하여 수질오염을 미리 막고 있었다.



▲ 하수처리장 시설 및 시스템 견학을 하는 참관단

시설견학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홍보담당자가 친절하게 우리 일행에게 신문지 두 장 크기의 최고급 특수용지에 칼라로 인쇄된 홍보물 3장씩을 둘둘 말아 차에 실어 주었다. 그것은 잠재 고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에 관하여 쉽게 이해시키려고 만든 자료였다.

그것을 들여다보니 스케치한 그림과 자세한 설명은 물론, 직접 도표를 작성하여 보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부분도 있어 견학 온 학생이 직접 참여토록 만든 것이었다. 우리 정수장에서도 그와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첫 장은 헤치헤치(Hetch Hetchy)물 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앞면에는 취수댐과 하천도가 그려 있었고, 뒷면에는 유역이란 무엇인가? 와 댐을 건설한 회사의 변천사, 물과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 등이 인쇄되어 있었고, 둘째 장은 샌프란시스코의 상수 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앞면에는 공급계통의 관로와 가압장 배수지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상수 시스템의 역사, 요금고지서 상의 항목별 설명, 물 사용량에 대한 통계표 상에 12%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도물을 직접 음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강우량과 적설량 막대그래프(Bar chart) 그리기, 도표 읽고 답하기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셋째 장에는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앞면에는 도로에 부설된 상·하수도관의 단면도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통계표, 맑은 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상·하수도관의 위치와 계통, 가정에서의 평균수압, 수압의 강도 확인, 그리고 하수처리 과정 등이 자세히 써여 있었다.

**6월 18일(금)**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 짐을 싸야 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6시에 호텔을 나서 길 건너 언덕으로 올라갔다.

4차선 도로에는 공중에 케이블을 맨 전기 버스가 다니는 가하면 전기 케이블을 공중이 아닌 노면의 레일을 함께 이용하는 전차가 다녔다. 시가지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지하철이 있었다.

언덕 정상에서 북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만과 베이 브리지(Bay Bridge)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주택지가 번화가를 이루고 있었다.



▲ 공중 케이블을 이용한 전기버스



▲전동차 운전기사가 전면이 아닌 가운데서 일하는 모습

다운타운의 최고 중심가에는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우리는 그 웅장함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오전 9시,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 준비를 위해 전용 버스에 올랐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 이곳에 있는 명소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전용버스가 호텔을 출발하여 도심을 빠져 나와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할렘(Harem)가를 지났다. 우리들은 보통 할렘 하면 흑인들의 갭당이 활동하는 무시무시한 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할렘의 원래 뜻은 궁궐 내의 후궁이나 가정의 내실 즉 아방궁을 가리키는 금단(禁斷)의 장소를 의미하는 아랍어 하림(Harm)이 터키어 풍으로 변한 말이라고 가이드는 자세히 설명했다.

잠시 후 우리도 말로만 들던 실리콘 벨리를 지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팰러앨토에 있는 사학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하였다. 이 대학은 철도건설업자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과 상원의원을 지낸 릴랜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 1824~1893)가 15세에 죽은 외아들을 생각하여 설립한 학교로 1891년 개교했으며, 학교 부지는 약 1,000만평이나 되고 교수 1인당 학생수는 8명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대학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고 전 세계에서 모인 우수한 인재들이 실리콘 벨리의 모체가 되어 산업화에 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이라 했다.

넓은 광장을 지나 희귀한 종려나무 가로수 길을 걸어 대학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가이드는 종교에 관계없이 각자 기도해 보라는 말을 했다. 나는 맨 앞쪽으로 가서 엄숙하게 앉아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 대학 구내에 있는 성당

성당 앞 광장 중심부에는 로댕(Auguste Rodin : 1840~1917)의 유명한 조각 작품이 노천에 전시되어 있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칼레를 구한 영웅적 시민대표 6명의 조각상이 사람의 실물보다 약간 크게 세워져 있었는데 몸짓과 표정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바닥에 설치한 작은 동판에는 'The Burghers of Calais' (칼레의 시민들)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오지 않았더라면 이 불후의 명작을 영원히 보지 못했으리라...



▲ 스탠포드 대학 내에 있는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 조각상

우리는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오후 3시 귀국 길에 올랐다. 이번 해외 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전시회 참관 및 시설 견학 내용이 알차서 좋았다. 가서 보고 배운 바를 우리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상수도 행정과 현장에 전파하여 한국의 상수도가 한걸음 발전된 기쁨을 마련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국 참관단의 해외출장 성과를 말한다면,

첫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도기관의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여 신기술 및 기자재의 발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의 해수 담수화 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그 운영 실태 및 유지관리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었다.

셋째, 미국수도협회(AWWA)와 한국상하수도협회(KWWA)의 우호적인 관계정립과 국내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대표적인 수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내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앞으로 양질의 선진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물이 생명이라는 화두가 된 이 시점에서 물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선진국의 수자원 정책 및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물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내의 수도 공무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

덧붙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준 김흥권 본부장님, 임동국 차장님, 각 부장님과 본청 관계관, 그리고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 ☺